



## 중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인지요

문)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바르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예요. 육신이 무효예요. 송장이 된단 말입니다. 정신과 그 자기 마음, 이렇게 해서 총동원해서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놓고 자기 마음, 자기가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쪽이 되죠. 자기가 알기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끔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영화배우들이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소임을 맡아가고 영화 촬영이 되는데, 감독은 쏙 빼 버리고 자기 자유껏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체에 정신세계의 참가자가 있고 지금 물질세계의 현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아니게끔 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납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공부해 줘요. 정신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앞으로 점점 살아가는 점점 압박해져요.

지금 모든 게 과학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해도,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이렇게 저렇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간다 이러면 그냥 나온 대로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 첨단 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이렇게 이 겁이라면 아니, 이 중세계가 버스라면은 버스 속에 다 타고 여러분이 다 타고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유 권리가.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 하고 모른다면은 물질계에도 발전이 못 돼요.

그리고 과학이다. 이러한 것도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 테두리가 있어서 요거는 요랄고요

건 요랄고, 즉 말하자면은 과학이라는 테두리에 덮여 있는 푸경이 덮여 있지만 한 게 아니 거든요. 이런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러니까 글로 써 놓는 거는 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의 푸경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 자유권의 과학이요. 이 모두를 여러분이, 지금 한창 자라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은, 앞으로 드문드문 그런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나온다면은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 살 가까이 왔을 때 그, 접시 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접시 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그 마음으로써 그대로 움직

거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는 데 이것을 풀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댁의 집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 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 같아요. 맛 먹어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의 모든 것을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런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

는 거, 어디서 온 거, 또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오는 신즉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바로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게 이 진리이니까요.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차만별의, 모두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넘나 무쇠나 모이는 데가 아니죠? 또 무쇠전에 금이 갈리 없죠. 넘마전에 금이 갈리 없고 강동 공장에 금이 갈리 없고,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모두 차원에 따라서 노



그림 · 최주현

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차원대로 모두 살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가 같이 모이지 말라 그래도 같이 모여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더러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그거 보세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아주 차원대로 그냥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 생활의 법칙이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야... 그래 사대성인들이 다 말씀하셨죠. 모두가 너무터 믿고 너무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무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류를 다 모르느니라.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류를 알려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전력으로, 갖은 각색으로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겠죠? 알아야 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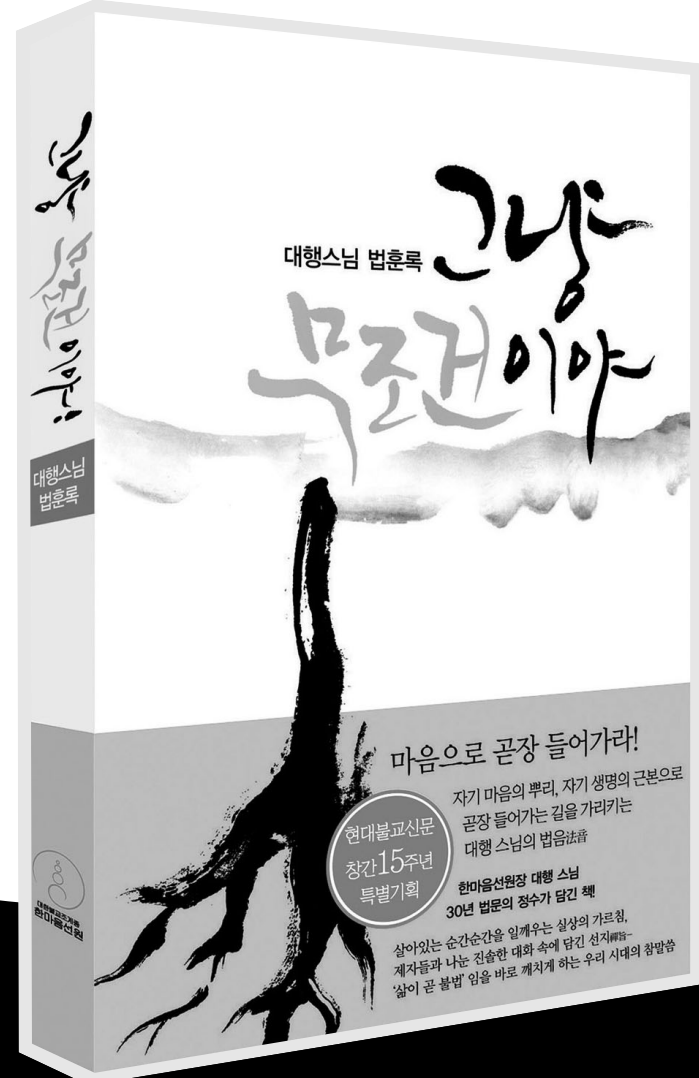
저 같은 범부가 마음을 내도 통할까요

문) 길을 가다가 소 떼가 트럭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아프지 않게 몸 벗고 인도환생 하라고 마음을 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범부가 그런 마음을 내도 그게 통할 수 있을까요?

답)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돼서 몰라.' 이렇게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닦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닦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닦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몰라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투철하다면 지나가다가 남들도 건질 수 있고 지나가다 그 불쌍한 사람 있으면 관해 주면 그냥 그 사람 관찮아질 거고,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몰라서 저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둬도 그 길을 터득을 하게끔 내버려두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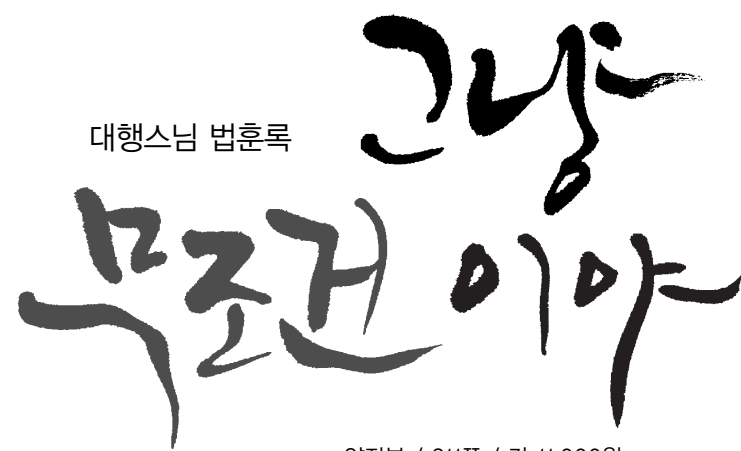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